

# 성폭력에 대한 성경적 관점

- Michael R. Cosby, 『Sex in the Bible』 중심으로

배도환\*

- I. 들어가면서
- II. 성폭력과 포르노그래피
  - 1.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 2. 포르노그래피의 폭력성 - 성에 대한 왜곡과 여성에 대한 억압
- III. 성에 대한 아가서의 관점
  - 1.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성
  - 2. 서로 소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
- IV. 나오면서 - 아가서와 하나님의 사랑

## I. 들어가면서

최근 성폭력 사건의 양상이 더욱 다양하고 과감해졌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잔인성과 심각한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다 하겠다. 연약한 어린이에게 강압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가족과 친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일단은 범죄자의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 안에서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

---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범죄의 동기가 되곤 한다.<sup>1)</sup>

영화감독 김기덕의 다음 말을 읽어보자.

영화에서 표면적으로 여자를 다루는 것, 강간 등 가학적이고 극단적인 것들은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모성결핍은 아니다. 스스로 원인을 캐보니까 내가 여자를 못 사귀었더라.<sup>2)</sup>

본인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포르노그래피에 사랑과 이성에 대한 왜곡된 경험이 한 몫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보니 지금 환경은 온갖 포르노로 포위되어 있다. 잠시만 주차해 놓으면 야릇한 광고 전단지까지 차 유리창에 몇 개씩 놓인다. 인터넷 스펀 메일을 걸러내는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메일박스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애를 먹는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포르노물을 구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포르노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포르노’라는 주제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 이 글을 쓰면서도 책과 자료의 제목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주위에서 못 보도록 했다. 혹 남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다. 숨 쉬는 공기만큼이나 많은 환경이 되어버린 포르노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꺼림직한 것으로 여기는 것만 보아도 포르노는 올바른 인도가 필요한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기존 논의 주제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예술이냐, 외설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풍기 문란이라는 대립,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허용과 규제와도 이어진다. 어떤 이는 고전의 포르노는

1) 이수정, 『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6), 242쪽.

2) 위정훈, 『네티즌과 김기덕 감독이 나눈 10문 10답』, 『씨네21』, 2001년 6월 8일,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mm=005001001&article\\_id=2466](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mm=005001001&article_id=2466)

풍자와 사회 비판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의 포르노에는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서 ‘포르노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포르노의 ‘폭력성’이다. 성에 대한 왜곡과 여성에 대한 억압에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피해자이지만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떻게 포르노가 왜곡되고 억압을 강요하는지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Sex in the Bible』의 4장, ‘아가서 : 감각의 찬미(Song of Songs: a Celebration of the Sensuous)’의 눈으로 포르노를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다.

## II. 성폭력과 포르노그래피

### 1.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포르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포르노와 음란성(obscenity)의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음란성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지어 보려 한다. 반면 페미니스트는 포르노를 폭력으로 보는 입장과 표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이들은 포르노를 ‘에로티카’와 구분하기도 한다. 에로티카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을 가리킨다. 개인의 감정이 중요시되고 신뢰와 보살핌, 또는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재충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sup>5)</sup>

포르노그래피는 흔히 ‘소프트코어’와 ‘하드코어’로 분류한다. 소프트코어

3) 박종성, 『포르노는 없다』(서울: 인간사랑, 2003년), 529쪽.

4)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상담 건 중 96.6%가 여성이었다.

<http://222.sisters.or.kr/bbs>

5) 심영희, 『포르노의 법적규제와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10집, 1994년 1월, 123-129쪽.

는 주로 여성의 나체와 남근을 상징하는 장신구와 반쪽짜리 의상으로 치장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제시하여 훑쳐보는 남자의 자위적 성적 욕망과 만족, 그리고 성적인 판타지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하드코어는 직접적으로 묘사한 성행위 자체와 성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자의 전신이 보이는 대신 여자의 성적 쾌감과 성기의 연관성을 과장해서 극대화시킨다.<sup>6)</sup> 그러나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이 둘은 모두 여자를 비하하고 남자의 흥을 돋우고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폭력과 뒤틀림이 존재한다.<sup>7)</sup>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은 매춘부, 특히 최하층의 매춘부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그리스어 pornē와 글쓰기를 의미하는 graphos가 혼합된 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매춘부가 비속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다. 최하층의 매춘부, 즉 포르네이아 porneia 만이 비속하게 여겨졌다.<sup>8)</sup>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묘사’를 의미하기보다 여자의 성욕을 음란하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가 더럽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자의 몸, 혹은 성기가 그 자체로 더럽고 음란하다는 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sup>9)</sup>

고대에도 포르노가 존재하였지만, 이것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움직임은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대중이 포르노그래피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성기나 성교의 노골적인 묘사가 상류층 사이에서만 유포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류계층으로 확산되자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다.<sup>10)</sup>

6) 유지나, 『포르노와 페미니즘의 만남 - 포르노는 정말 성을 해방 시키는가』, 『사회평론 길』, Vol94, No9, 1994년, 204쪽.

7) 심영희, 윗글, 134쪽.

8) 안드레아 드워킨, 柳惠蓮 옮김, 『포르노그래피 -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 (서울: 東文選, 1996), 298쪽.

9) 안드레아 드워킨, 윗글, 299쪽.

10) 이미정, 『변화하는 성윤리와 포르노그래피』,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 메가

그러나 여전히 포르노그래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에 향유하는 층은 소수였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영화, 비디오, 인터넷의 매체가 등장하고, 반문화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포르노는 대중화되어 갔다.<sup>11)</sup>

## 2. 포르노그래피의 폭력성 - 성에 대한 왜곡과 여성에 대한 억압

물론, 포르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자도 있다. 포르노를 통해 가상의 상대를 상상하며 현실의 파트너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성적 흥분과 만족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연인과 부부 등의 관계는 불안정하여 와해되고 쉽게 서로 상처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포르노는 관계의 부담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sup>12)</sup> 포르노그래피의 주된 고객층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시달리는 중년남성들이라고 한다. 한국의 40대 남성의 최고 사망률이 보여주듯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년 남성들에게 여성의 성에 대한 판타지는 일상의 도피구실을 하는지도 모른다.<sup>13)</sup> 그러나 포르노그래피에 탐닉하면, 오히려 실제 여성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면은 부각되기 어렵다. 매리 헌트(Mary Hunt)는 포르노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며, 성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고, 성폭력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4)</sup>

덴마크에서는 1960년대 법을 바꾸어 포르노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모

---

트렌드 시리즈』, Vol 2004, No13, 67쪽.

11) 이미정, 윗글, 68쪽.

12) 이미정, 윗글, 70쪽.

13) 유지나, 윗글, 205쪽.

14) Mary E. Hunt, "Theological Pornography : From Corporate to Communal Ethica", *Christianity, Patriarchy, and Abuse*, Joanne Carlson Brown and Carole R. Bohn, des,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89, 91쪽.

든 제한을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노출증, 관음증, 아동 추행 같은 범죄가 즉각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포르노그래피의 표현이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았을 때이다. 미국의 경우 〈허슬러 Hustler〉나 〈플레이보이 Playboy〉 같은 포르노 잡지의 판매량과 강간 사건의 발생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sup>15)</sup>

지금의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한 '성적 흥분'의 내용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선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포르노그래피의 주 생산자와 소비자가 남자라는 것이다. 포르노물의 폭발적 증가는 대부분 일차적으로 남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고, 남자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포르노의 내용은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자는 강간되고, 밧줄을 비롯하여 사슬에 묶여 있고, 재갈이 물리고, 구타당하고, 신체 일부가 절단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남자의 성적 지배는 이데올로기와 형이상학을 구비한 실제적인 제도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자의 몸을 성적으로 식민지화하는 것은 실제적인 현실이며, 남자는 여자의 몸의 성적이며 생식적 사용을 지배한다.<sup>17)</sup> 이어서 그는 남자의 성적 지배의 이데올로기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남자는 페니스를 지녔으므로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둘째, 여자의 육체의 소유는 남자의 자연스런 권리이다.

셋째, 섹스는 실제로 여자에 대한 정복과 소유이다.

넷째, 성적이거나 생식적인 목적으로 여자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남자의 자연의 권리이다.

15) 패트리샤 윌리스, 『인터넷 포르노의 심리적 특성』, 『상담과 선교』, Vol9, No3, 2001년, 47-48쪽.

16) 엔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서울: 새물결, 2001), 187쪽.

17) 안드레아 드워킨, 윗글, 303쪽.

다섯째, 남자의 성적인 의지는 여자의 성적 존재의 제변수를 적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정한다.

그래서 남자의 성적 지배의 형이상학은 여자는 모두 매춘부일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sup>18)</sup> 여성을 굴복시키고 부끄럽게 만들려는 충동은 남자 심리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전쟁 상황을 제외하면 남자들은 같은 남자에게보다 여자에게 더욱 폭력적이다.<sup>19)</sup>

그래서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양에서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전문 연구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포르노의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분석 없이는 그 본질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0)</sup>

포르노그래피가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징과도 관계있다. 서양에서는 어릴 적부터 실제 성행위 과정과 임신과 출산 과정을 담은 비디오로 성교육을 시키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성의 유별을 강조하고 성에 대한 수치심과 호기심쪽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기울어져 있다. 게다가 정력을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여성을 편렵하는 것을 남성의 풍류라 여기는가 하면, 일찍이 기생문화로 여성의 상품화를 제도화해온 한국의 남성정력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포르노그래피적인 측면이 농후하다.<sup>21)</sup>

포르노는 강간에 대한 신화, 즉 여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은 그러한 성적 강요를 즐긴다는 왜곡을 부추긴다.<sup>22)</sup> 실제로 어느 피해 여성은 강간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

---

18) 윗글, 303쪽.

19) 앤소니 기든스, 윗글, 192쪽.

20) 유지나, 윗글, 202쪽.

21) 윗글, 205쪽.

22) 패트리샤 윌리스, 윗글, 50쪽.

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영화에서 다 봤어. 넌 언어맞는 걸 좋아하는 여자야! 때리니깐 좋다고 말하더군. 좋다고 말해봐!”<sup>23)</sup>

포르노그래피가 보여주는 여성상은 매춘부 그 자체이다. 모든 여자는 매춘부이며, 모든 매춘부는 여자의 속성이다. 포르노가 그리는 이러한 것을 남자들이 믿고 있다는 것에 여자들은 놀란다. 남자들이 믿는 다는 것을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sup>24)</sup>

### Ⅲ. 성에 대한 아가서의 관점

‘포르노 포르나’라는 공연은 남성들의 억압된 성적 욕망을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다. 포르노의 환상이 만들어낸 고되고 힘든 섹스, 그런 섹스가 만들어낸 중압감과 피로, 성기 확대 수술과 비아그라, 변강쇠의 신화 등을 고발한다. 포르나는 그래서 여성을 위한 포르노라기보다는 포르노를 넘어선 대안 포르노, 새로운 성 문화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모호하고 과장됐지만, 그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sup>25)</sup>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해소하려는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만약 이기심과 폭력으로서의 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객체와 주체만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의 발생에 불과하다. 우리는 왜곡되고 억압되어 있는 성폭력과 포르노의 대안을 성경의 ‘아가서’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은 아가서이다. 왜 많은 성경 중에서 아가서인가? 포르노를 다룰 때, 관습적인 고정관념이나 율법주의적 차원에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

23) 한스 페터 뒤르, 최상안 옮김, 『음란과 폭력』(서울: 한길, 1976), 547쪽.

24) 안드레아 드워킨, 윗글, 256쪽.

25) 이정환, 윗글, 17쪽.

이다.<sup>26)</sup> 로마제국 하에서 본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인적 인간관, 곧 인간을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 보는 전통은 점점 희미해져갔다.<sup>27)</sup> 기독교는 몸, 성에 대한 논의를 죄악시 하거나 금기시 하여왔다. 전통과 율법은 성과 몸을 편협하게 가르쳐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욕·생식·월경과 출산 시에 흘리는 여성의 피는 더럽고 악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성욕과 죄의식을 서로 연결지어, 성결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내린다. 성욕이 발동할 때마다 인간은 깊은 죄의식에 사로 잡혀야 했다.<sup>28)</sup> 그러나 성욕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계속 분출되었고, 결국 기독교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욕정은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포르노그래피는 당연히 여성을 억압하고 도구화, 물건화하였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판단보다 오히려 아가서를 통해 성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아가서는 어떤 성경인가? 아가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그 어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도덕적 교훈도 찾기 힘들다. 남자와 여자의 열정적인 사랑만이 가득차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가서 해석은 알레고리칼 해석을 적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김지찬은 그것이 극단적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성경은 그 기본적인 해석방법으로 읽어야 하는데, 즉 문법적·문예적·역사적·신학적·정경적 해석법을 적용해야 하며, 아가서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sup>29)</sup>

오히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남녀의 몸과 성에 대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26) 윗글, 312쪽.

27) 구미정, 『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크리스찬 아카데미 새울림 신학포럼 발제논문, 2002년 5월 11일, 124쪽.

28) 구미정, 윗글, 125-126쪽.

29)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메시지』, 『신학지남』 제74권 3호 통권 제292호 2007년 9월, 125쪽.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가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김지찬은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외설적인 음란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첫째 여인의 몸을 묘사하면서 실제로 묘사하기보다는 시적으로 변형하였기 때문이다. (2) 둘째 우아한 은유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묘사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 1.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성

포르노그래피에서 몸과 성은 그저 탐닉과 탐욕의 대상이다. 도구이며, 정복의 대상이다. 거기에서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힘들다. 포르노그래피에서 특정 포즈를 취한 여자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남자의 노리개이며, 남자의 통제와 길들이기의 대상인 것이다. 성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fuck’, ‘knock up’, ‘screw’같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달콤한 언어가 아니라 노예에게 퍼붓기에 알맞은 표현이다.<sup>32)</sup>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의 성기는 다른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여성을 파편화시키는 반면, 남성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33)</sup>

반면 아가서는 몸과 성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가서는 성을 아

30) 김지찬, *읽글*, 126쪽.

31) 김지찬, *읽글*, 154쪽.

32) 이미정, *읽글*, 72쪽.

33) 신명아, *읽글*, 36쪽.

34) 박원기, *읽글*, 297쪽, Michael R. Cosby, *Sex in the Bible*, p. 79

름다운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유대 문화 기준을 고려해볼 때, 결혼이 전제되었을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 보다는 물속에서 노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성을 그리고 있다.<sup>35)</sup>

아가서는 사랑과 육체적 열망에 대한 기쁨과 갈구에 집중한다. 그래서 지나치리만큼 성적이다(it is so sexual).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아가서를 대할 때 당황해한다. 각 인물들은 강한 신체적 열망과 욕망, 그리고 성취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삶의 성적 기쁨을 부끄럼 없이 표현하고 있다.<sup>36)</sup>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 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같이. (2:16-17)

여자는 자신의 몸을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기쁜 장소로 비유하고 있다. 몸의 특정한 부위나 애인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백합'과 '거친 언덕'으로 묘사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sup>37)</sup> 그렇든 아니든 표현들은 굉장히 에로틱하다.

4장에서도 진솔한 표현으로 몸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그대 입술은 홍색실 같아. 그대 입은 아름다워라. 가리게 너머로 보이는 그대 두 뺨은 쪼개 놓은 석류 반쪽 같아.(4:3)

그녀의 아름다움은 얼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그는 말한다.

---

35) Michael R. Cosby, 윗글, p. 54 - 55

36) 윗글, 55

37) 윗글, 59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용사들의 방패 천 개를 두려고 건  
축한 다윗 성 망대 같아. 그대의 두 젓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  
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4:4-5)

여인은 좀 커다랗고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고결하  
게 보이는 자세를 유지하며 곧게 세울 뿐 아니라, 반짝거리는 목걸이가  
걸려 있는 그녀의 목을 봤을 때, 그 남자는 나라의 힘과 자부심의 상징인  
다윗의 망대를 연상했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의  
완성미를 더하고 있다. 거기다, 그 남자의 다음 말은 그가 그녀의 아름다  
운 가슴을 단지 쳐다보는 것보다 더 즐기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언덕으  
로 가리라. (4:6)

그는 가슴을 향기로운 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놀 수 있는 향긋한 즐  
거운 장소로 비유하고 있다.<sup>38)</sup>

## 2. 서로 소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

포르노에서 여성은 성적 종속물이다. 그녀의 인격은 박탈되고 그녀의  
몸과 의지는 남성 포르노 제작자들과 고객 남성들의 취향과 욕망이 통제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서 포르노는 약한 자를 착취하는 권력지향의  
속성을 가졌으며, 남성의 지배라는 교의를 굳게 지키는 원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르노는 남성 지배의 DNA인 것이다.<sup>39)</sup>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는 성은 불행과 좌절만 남을 뿐이다. 서로 다른 성을 지배

---

38) 윗글, 66

39) 신명아, 윗글 33쪽.

하거나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sup>40)</sup>

포르노그래피는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문학 양식을 빌렸든 다른 어떤 미디어를 사용했든 모두 여성의 신체 자체를 구경거리로 한다. 요란한 치장으로 구성된 여자의 이미지는 남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동시에 변태적인 성적 욕망에 간혀 몸부림치는 여자를 남자가 구원해줘야 한다는 뒤틀린 논리를 강요한다.<sup>41)</sup>

그러나 아가서의 성은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게 소유하고, 서로를 대등하게 존중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한쪽이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둘의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로 이어진다.

4장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화답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신랑은 새로운 신부의 정원에서 즐거운 과일들을 맛보기를 고대한다. 회답으로 신부는 신랑의 구애에 따듯이 응답하며, 그의 정원 이미지를 계속 쓰고 있다. 어떤 주저함이나 반대를 나타내지 않으며, 그녀는 신랑에게 와서 그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라고 초대한다.(4:11-16)<sup>42)</sup>

7장에는 전회에 해당하는 시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성적인 묘사는 서로 대등하게 소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남자) 오, 귀한 분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인이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짚단 같소. 그대 두 젓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한 쌍 같소. 그대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대 두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결의 연못 같구려.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소. 그대 머리는 갈멜 산 같고,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ض뿔

40)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97쪽.

41) 유지나, 윗글, 205쪽.

42) Michael R. Cosby, 윗글, p. 74

벽걸이 용단 갈소. 왕은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에 마음이 빼앗겼다  
오. (7:1-5)

남자는 마치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 하고 있다. 남자는 애인의 신체적 미에 대해 상당히 창의적인 칭찬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매우 익살스럽게 보이기도 한다.<sup>43)</sup>

그 남자가 그의 여인에 대해 칭송을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 대한 찬미를 끝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의도이다. 그녀의 가슴을 종려나무의 열매송이로 비유하면서 그 나무로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싶다는 욕망을 알리고 있다.(7:6 8)<sup>44)</sup>

이런 아낌없는 칭찬은 꽤 효과적이었는데, 그녀가 그의 구애에 그녀에게 와서 즐기라는 따뜻한 초대로 응대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그녀를 갈구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여성은 부드럽게 “사랑하는 이여, 내게로 오라”고 말한다. 그가 사용한 과일 이미지를 그들의 성관계를 묘사하는데 계속 쓰며 그를 포도밭(7:10 12)으로 초대하고 있다. 달콤한 향과 향기로운 과일의 맛으로 가득한 멋진 정원에서 그녀는 약속한다.

우리 일찍 포도원 들로 나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합환채가 그 향기를 발하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 햇것이 묵은 것만큼 많아요. (7:12-13)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의 요청에서 사랑의 확신을 갖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속하였고, 그녀는 그에게 속하였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의 기쁨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sup>45)</sup> 아가서의 목소리는 서로 좋아

43) 윗글, p. 63

44) 윗글, p. 71-72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갈망하며, 서로 함께 즐기고자, 서로 요청하는 목소리이다.<sup>46)</sup>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존중의 위치로 놓는다. 동시에 성과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진정한 성의 기쁨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다.<sup>47)</sup>

#### IV. 나가면서 - 아가서와 하나님의 사랑

포르노그래피는 왜곡되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포르노는 비뚤어진 성애이다. 그 속에서 여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여자를 도구화하고, 물건화하고, 박해와 폭력을 일삼는다.

배려와 책임, 정의로운 상호관계와 공동체 형성이 성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쾌락을 목적으로 성을 탐닉하는 행위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가족 및 사회가 두루 관계를 맺는 폭넓은 공동체 형성의 윤리를 포괄한다. 성행위가 사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인간은 성을 통해 창조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왜곡된 성의 여러 가지 측면들, 강간·간음·부정 또는 부모됨의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이기심·혼전 성관계·혼외 성관계 등은 성경의 관점에서 타락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탐닉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진정한 성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랑하는 연인과 그 열매인 자녀, 더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격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sup>48)</sup>

45) 윗글, p. 59

46) Robe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Basic Books, 1985, 186쪽.

47) 박원기, 윗글, 302쪽.

창세기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전한다(2:18). 그리고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2:25). 몸과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서로는 자기의 바람이나 성적 환상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 성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엑스타시의 경험도 마찬가지다.<sup>49)</sup> 아가서는 포르노그래피의 왜곡과 억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에게 몸과 성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아가서를 통해 남녀의 몸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람들은 성적 충동과 해소가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성적 관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0)</sup>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출34:14, 20:5, 신4:24, 5:9, 6:15, 수24:19),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신6:5, 30:6). 그러나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며(신5:8, 겔 14:3-4), 그러한 것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사41:29).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자와 만나 살다가 헤어지기를 다섯 번이나 하였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나, 그 역시 진정한 남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다. 공허함과 대인기피 현상에 외로움과 좌절 속에 살아 가고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요4장)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의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김지찬의

48) 윗글, 310쪽.

49) 구미정, 윗글, 145쪽.

50) Tremper Longman III &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2nded, Zondervan, 2006, 299쪽.

말을 인용해보자.

아가서의 주요 대상은 인간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부부간의 성애적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인간적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다.<sup>51)</sup>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요15:13, 롬5:8), 이 세상 이 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

51) 김지찬, 윗글, 160쪽.

<국문초록>

## 성폭력에 대한 성경적 관점

- Michael R. Cosby, 『Sex in the Bible』 중심으로

최근 성폭력 사건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고 과감해졌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잔인성과 심각한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다. 성폭력의 증가는 포르노그래피의 증가와 관련있다. 오늘날 주위의 모든 환경은 포르노로 포위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포르노의 폭력성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요한다. 첫 번째로, 포르노그래피가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대안으로 성경의 아가서를 제시하고, 아가서의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포르노그래피에서 몸과 성은 그저 탐닉과 탐욕의 대상이다. 도구이며, 정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가서는 몸과 성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아가서는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성적 종속물이다. 그녀의 인격은 박탈되고 그녀의 몸과 의지는 남성 포르노 제작자들과 고객 남성들의 취향과 욕망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아가서의 성은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게 소유하고, 존중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한쪽이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둘의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로 이어진다.

아가서는 포르노그래피의 왜곡과 억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에게 몸과 성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아가서의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제어** :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아가서, 성(sex), 성경에서의 성(Sex in the Bible)

〈Abstract〉

# A study on the biblical ideas for the Sexual Violence

: focussing on Michael R. Cosby, 『Sex in the Bible』

Bae, Do-Hwan

Today's society has brought with it many changes in sexual violence conditions. As for the sexual violence for the child in particular, a shock to give the society by a brutality and serious damage aftereffects is bigger. The increase of the sexual violence have relevance to the increase of the pornography.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we were surrounded by pornography

The interest of this article is the violence characteristics of the pornography. Pornography plants a thought distorted view for the sex and forces suppression for the woman. I will make clear that it is anything that pornography lets you distort it earlier. And I show the Song of Songs by a Christian alternative plan and going to watch the sex at a point of view of the Song of Songs.

The body and sex are an object of the indulgence and greedy and conquest in pornography. But the Song of Songs draw the body and sex beautifully. God creative the sex.

A woman is sexual slaveling in pornography. Her character is deprived of and her body and will are controlled by the idea of the man customer. But in the Song of Songs, man and woman own each other equally. A certain one does not enjoy pleasure one-sidedly.

The Song of Songs, says well whether our body and sex is no matter how beautiful. In addition, we must realize love of God through true love of the Song of Songs.

**Key words** : Sexual Violence, pornography, the Song of Songs, sex, Sex in the Bible.

## 〈참고문헌〉

- 구미정, 「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크리스찬 아카데미 새울림 신학포럼 발제논문, 2002년 5월 11일,
- 이미정, 「변화하는 성윤리와 포르노그래피」,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Vol 2004, No13
- 이정환, 「포르노는 가라 즐겁고 유쾌한 포르나가 왔다」, 『월간말』, 2005년도 7월호, 통권 229호
- 위정훈, 「네티즌과 김기덕 감독이 나눈 10문 10답」, 『씨네21』, 2001년 6월 8일,
- 유지나, 「포르노와 페미니즘의 만남 - 포르노는 정말 성을 해방 시키는가」, 『사회평론 길』, Vol194, No9, 1994년
- 윤종모,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목회상담」, 『기독교사상』, 제36권 제7호 통제403호 1992년 7월 75-85쪽.
- 이수정, 『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6), 242쪽.
- 정현옥,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8년
- 패트리샤 윌리스, 「인터넷 포르노의 심리적 특성」, 『상담과 선교』, Vol19, No3, 2001년
-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박종성, 『포르노는 없다』(서울: 인간사랑, 2003년)
- 심영희, 「포르노의 법적규제와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10집, 1994년 1월
- 안드레아 드워킨, 柳惠蓮 옮김, 『포르노그래피 -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서울: 東文選, 1996)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서울: 새물결, 2001)
- 한스 페터 뒤르, 최상안 옮김, 『음란과 폭력』(서울: 한길, 1976)
- Michael R. Cosby, Sex in the Bible